SK증권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10월 둘째 주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s.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co.kr
주식시황. 조준기 3773-9996, junkee.cho@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Contents

SK증권 리서치센터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ummary: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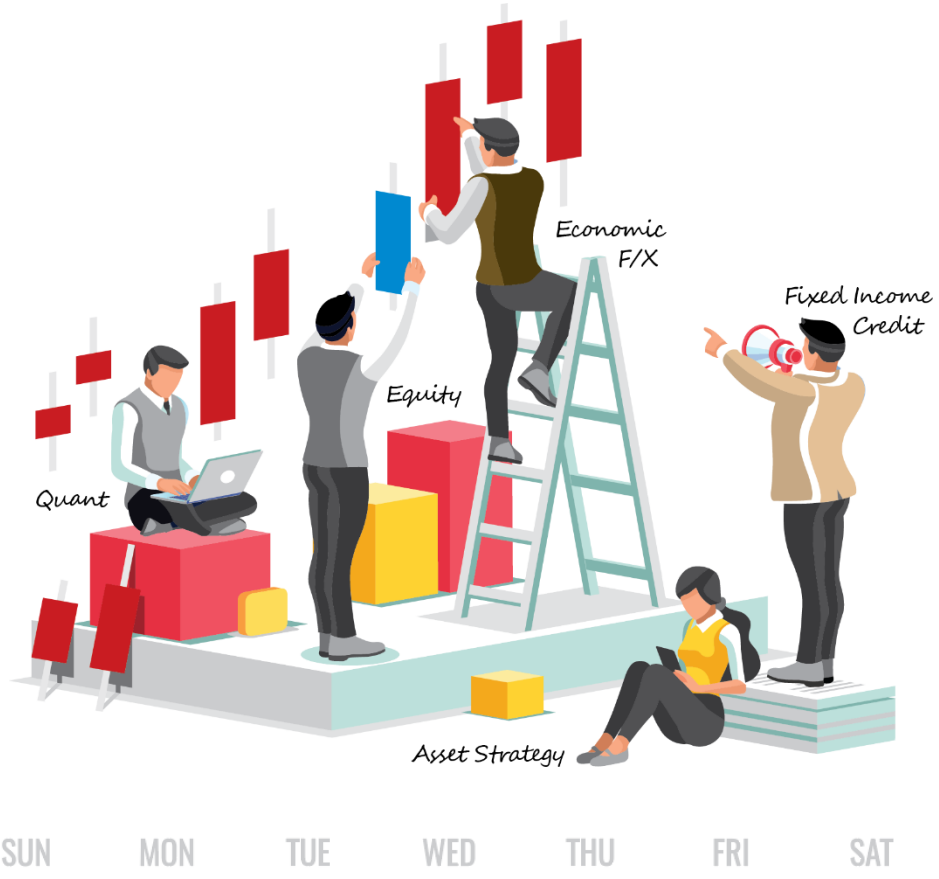
SK증권 리서치센터

경제/금리 지금의 달러 강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 10월 들어 달러화 강세 재료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달러화는 10일까지 2.1%의 강세를 기록. 9월말 1,309원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도 이에 따라 1,349원대까지 상승. 미국 9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 미국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음
- 추가로 9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치 상회하며 미 국채 금리 급등. 소기업낙관지수 등 일부 지표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 물가와 함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 상회하며 금리 상승 폭 모두 되돌리기는 했으나 경기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재발 사이 좁은 길을 걸으며 당분간 물가 지표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도 재차 높아질 수 있음. 단, 인플레이션 재발과 관련해 올해 연말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 반등 나타날 수 있으나 베이지북과 연준 의사록에서도 나타났듯 기업의 가격 전가력이 약화되고 있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이번 달러 강세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확대이기 때문. 하지만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질 경우 '16년과 같이 달러-원 환율 급등 가능성 존재. 이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의 의미임에 주의할 필요
- 한국, FTSE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 실제 편입은 25년 11월 부터 진행 예정이나 타 국가 사례를 생각해보면 외국인 자금은 선제적으로 유입될 것. 특히 WGBI 듀레이션이 7년인 점 고려 시 중장기물 중심 매수세 예상되기에 통상적 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 불-플랫할 가능성 유의 필요

주식 전략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 9/24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 발표 이후 중화권 증시는 엄청난 각도의 급등을 보임. 국경절 연휴 이후 디테일한 재정정책 발표 부재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되며 조정 발생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 또한 급등 이후 가파른 조정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중국 국무원에서 토요일 경기부양책 발표 일정을 예고하는 등 확실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중국의 부양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부양책의 내용과 강도를 감안할 경우 과거 재정 및 통화정책이 고강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던 경험
- 연준과 싸우지 말라(Don't fight the Fed)는 격언을 대부분이 알고 있음. 굳이 인민은행과도 싸울 필요가 없는데, 기대감에 너무 급하게 오른 가격과 그에 수반되는 고변동성은 분명 경계 대상이나 정책의 지속성과 세기만 담보된다면 중기적으로 방향성 위로 보기 충분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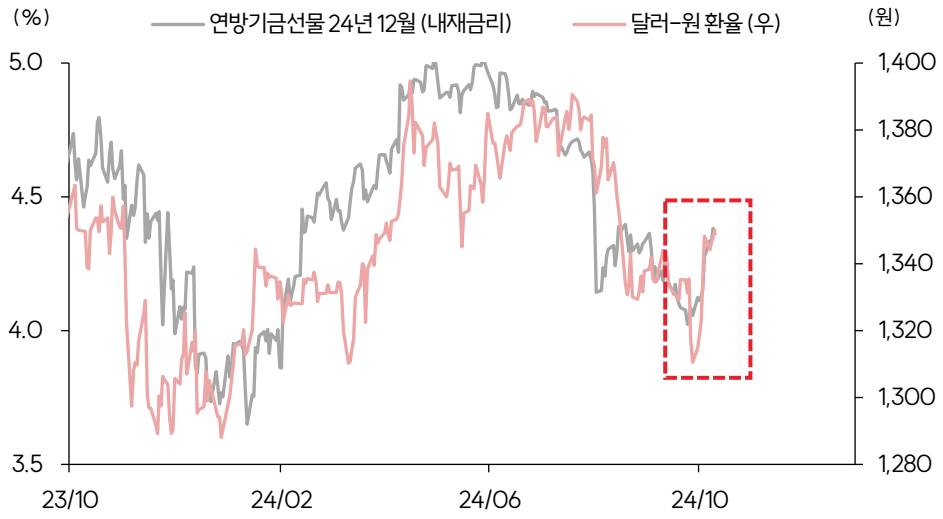
자산시장
Point to Point

경제/환율. 류진이

9월말 나타났던 원화 강세 재료 모두 소진. 당분간 박스권

- **달러-원 환율, 재개되는 달러 강세 속 낮아지지 못할 재료만 상존. 10월 중 방향성 없는 박스권 흐름 전망**
  - 10월 들어 달러화 강세 재료들이 잇달아 등장하며 달러화는 10일까지 2.1%의 강세를 기록. 9월말 1,309원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도 이에 따라 1,349원대까지 상승. 미국 9월 고용 및 물가 서프라이즈 등 미국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눈높이가 조정되고 있음
  - 달러 강세에 더해 최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따른 엔화 약세가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을 확대.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엔화도 140엔 후반에서 박스권 흐름 보일 전망
  - 당분간 달러-원 환율도 1,340~1,355원 사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 대선과 FOMC가 박스권 돌파에 관건
  - 최근의 달러 강세는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확대이기 때문
  -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프라이싱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질 경우 달러-원 환율은 2016년과 같은 급등세 시현할 가능성. 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의 의미임에 주의할 필요

미국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 전망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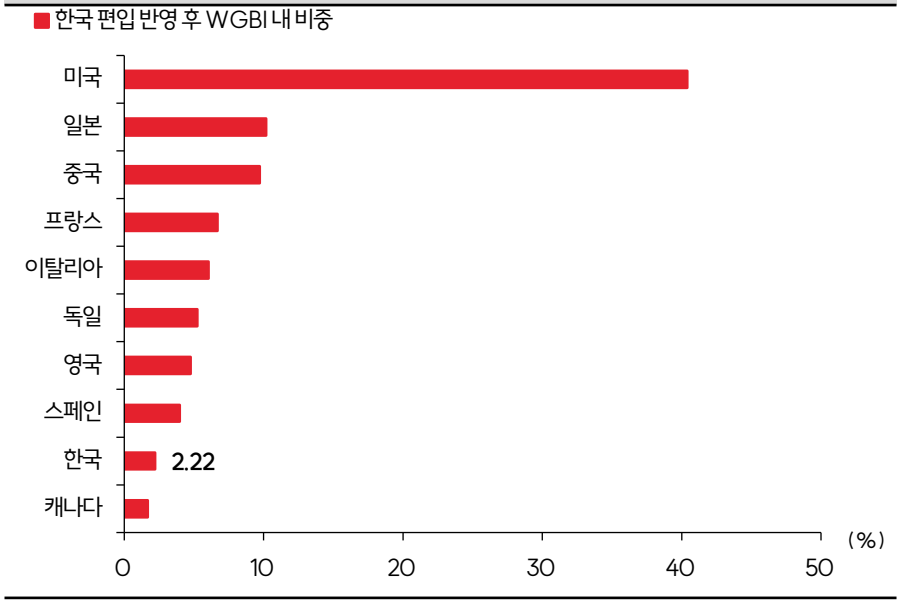
일본 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자료 : 한겨레 신문, SK증권

WGBI 편입,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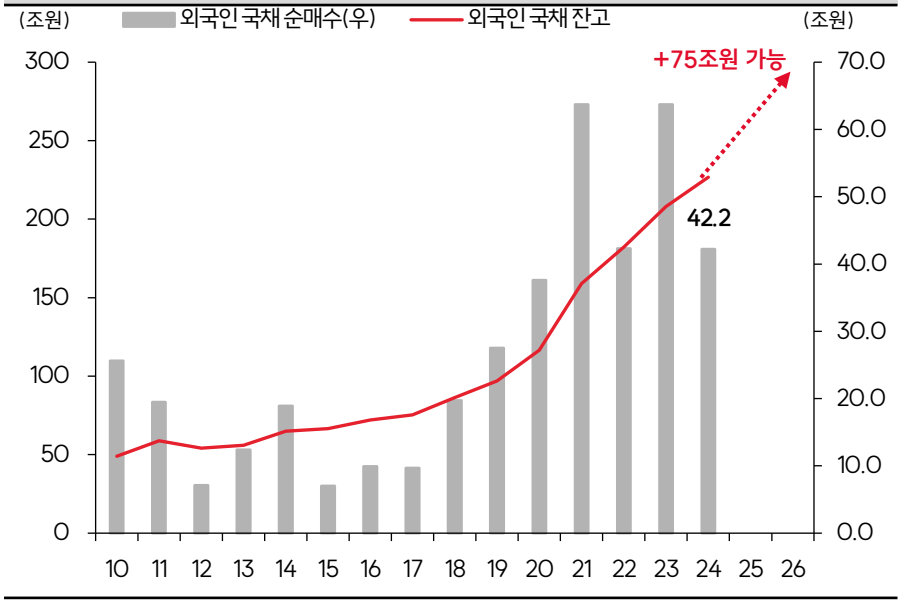
- **한국 WGBI 편입, 대규모 추종 자금 유입과 함께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있을 것**
  - FTSE, 24년 9월 국가 채권 분류 발표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 22년 9월 관찰대상국 선정 이후 2년 만에 달성. 그간 미 충족 상태였던 정성 기준(시장 접근성)이 국채통합계좌 도입,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통해 레벨2로 상향되어 편입에 성공
  - 약 2.5조~3조 달러로 추정되는 WGBI 추종자금과 한국의 지수 내 비중 2.22% 반영 시 총 유입액은 약 560~670억 달러. 편입 기간 12~18개월간 약 4~7.5조원 유입될 전망. 채권시장에서 우려하던 25년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우려 해소할 수 있는 수준. 또한 22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고 5년물 금리 기준 25~70bp 하락 효과 추정
  - WGBI 듀레이션 약 7년인 점, 5~10년물 중심으로 유입된 중국 등 타 국가들의 사례 고려 시 중장기물 중심 자금 유입 전망되어 불 플래트닝 요소로 작용될 것. 이에 따라 통상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 스팁 강도 약해질 수 있음

25년 11월 부터 편입될 한국, WGBI 내 9번째 규모인 2.22% 비중 차지



자료 : FTSE, SK증권

WGBI 추종 자금 유입으로 중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효과 예상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주: 자금 유입 증가 규모는 최소로 가정(약 560억 달러, 24년 10월 10일 달러-원 환율 적용)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미국의 빅컷 이후 통화정책 완화 여력 생긴 중국의 최근 부양책 타임라인

시기	부서/회의	키워드	내용
9/24	인민은행	통화정책	지준율 50bp 인하
			7일물 역RP 금리 20bp 인하
			LPR 금리 20~25bp 인하
			MLF 금리 30bp 인하
		부동산	기존주택 모기지 금리 약 50bp 인하
			2주택 LTV 완화(75% > 90%)
			3,000억 위안 보장성 주택 재대출 비중 확대(60% > 100%)
		주식시장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왑(SFISF) 조성 예고
9/26	중앙정치국 회의	재정정책	필요한 재정지출 보장.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 특별채 발행 및 사용, 용도 완화
		부동산	부동산 시장 침체 저지 및 안정화 도모.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확대, 기존 유휴 토지 활성화 지원
		민생	졸업생, 농민공, 빈곤층 취업 지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고령, 장애, 장기간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9/30	베이징	부동산	1주택 LTV 85%, 2주택 80%로 완화.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 납부 조건 완화
	광저우		후커우 등 주택 구매 자격 심사 폐지, 주택 구매 건수에 대한 제한 폐지
	상하이		1주택 LTV 85%, 2주택 LTV 75%로 완화.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 납부 조건 완화
	선전		1주택 LTV 85%, 2주택 80%로 완화. 대출 정책 완화
10/10	인민은행	주식시장	5,000억 위안 규모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왑(SFISF) 조성

자료 : 언론종합,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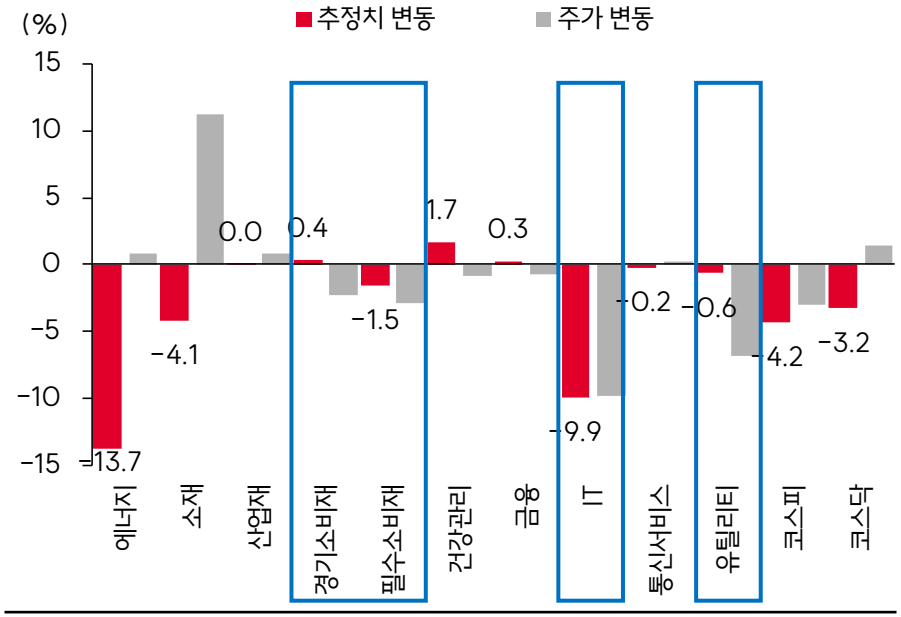
- **패키지 통화정책 예고, 더 높아진 정책 강도**
  - 9/24 중국의 고강도 부양책 발표 이후 중화권 증시는 엄청난 각도의 급등을 보임. 국경절 연휴 이후 디테일한 재정정책 발표 부재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되며 조정 발생했지만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 또한 급등 이후 가파른 조정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중국 국무원에서 토요일 경기부양책 발표 일정을 예고하는 등 확실한 의지 피력
  - 중국의 부양책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부양책의 내용과 강도를 감안할 경우 과거 재정 및 통화정책이 고강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던 경험
  - 연준과 싸우지 말라(Don't fight the Fed)는 격언을 대부분이 알고 있음. 굳이 인민은행과도 싸울 필요가 없는데, 기대감에 너무 급하게 오른 가격과 그에 수반되는 고변동성은 분명 경계 대상이나 정책의 지속성과 세기만 담보된다면 중기적으로 방향성 위로 보기 충분

퀀트전략. 황지우

수급으로 가늠해본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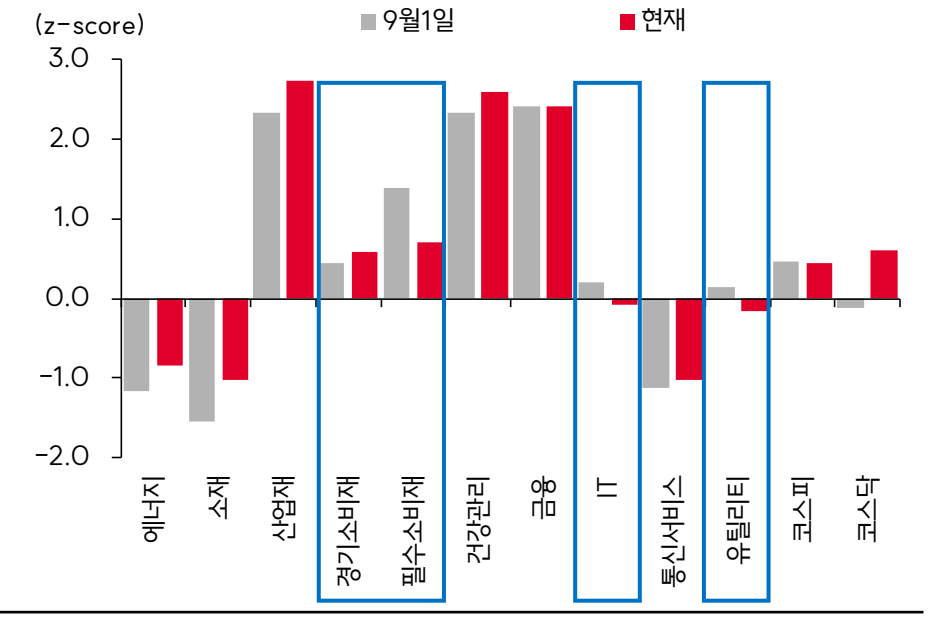
- **컨센서스의 주가 설명력은 감퇴하는 하반기. 대안으로 살펴볼만한 외국인 수급**
  -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현재까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는 일정 수준 조정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주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
  - 한편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업종들은 주로 외국인 수급이 불확실했던 업종들로 관찰됨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시가총액 값을 표준화하여 현재 위치를 표현했을 때 상위 업종은 산업재/건강관리/금융, 하위 업종은 에너지, 소재, 통신서비스이며, 해당 업종들은 주가 방어를 잘했거나, 아니면 빠른 반등이 관찰되고 있음
  - 반면 외국인 수급이 과거에 대비하여 모호했던 IT, 유틸리티, 소비재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주가 조정 발생
  -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확실하게 외면되었거나, 아니면 낙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에서 위험/안전 추구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업종별 하반기 당기순이익 / 주가 월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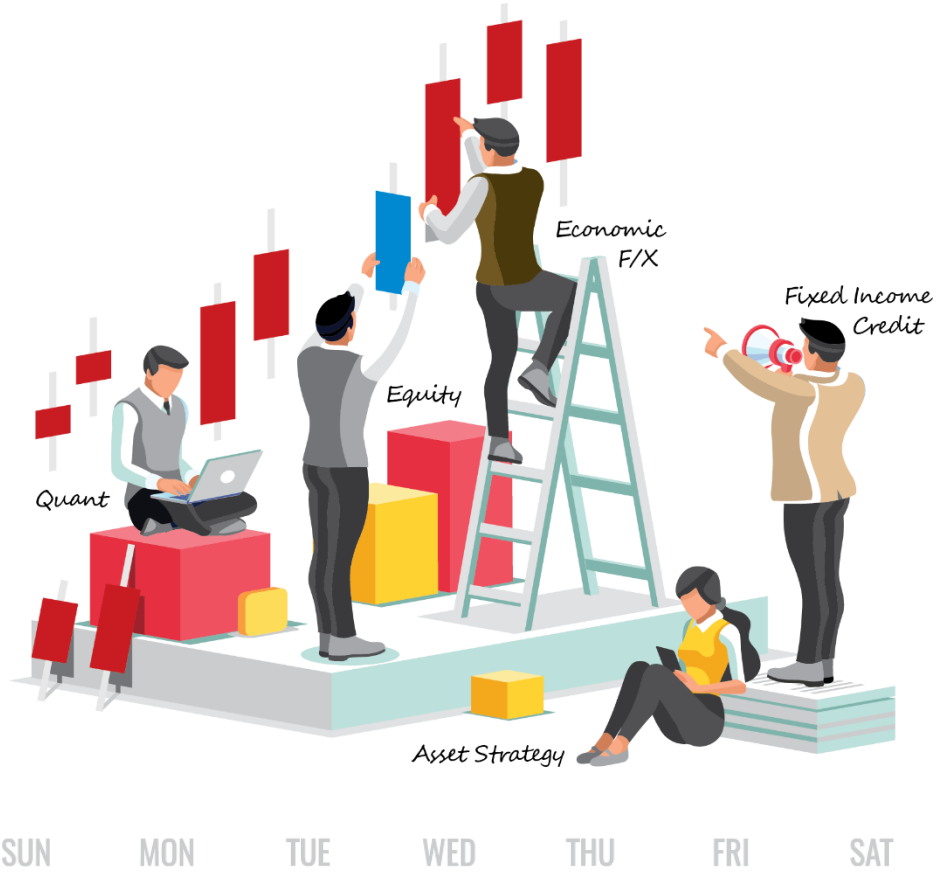


자료 : Quantiwise, SK증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 외국인 시가총액 표준화 점수



자료 : Quantiwise, SK증권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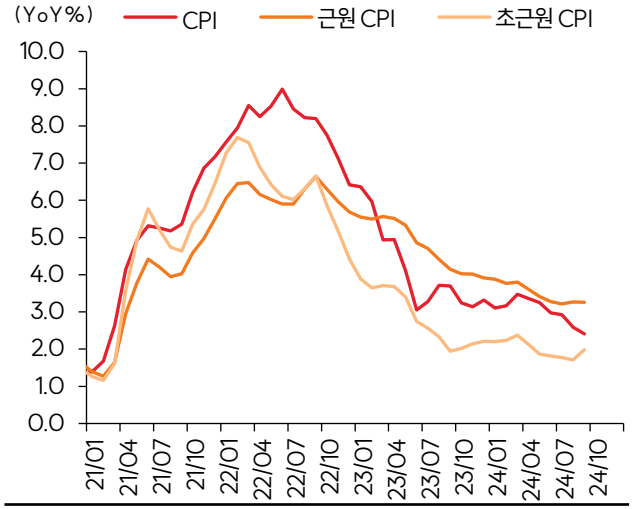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1. Macro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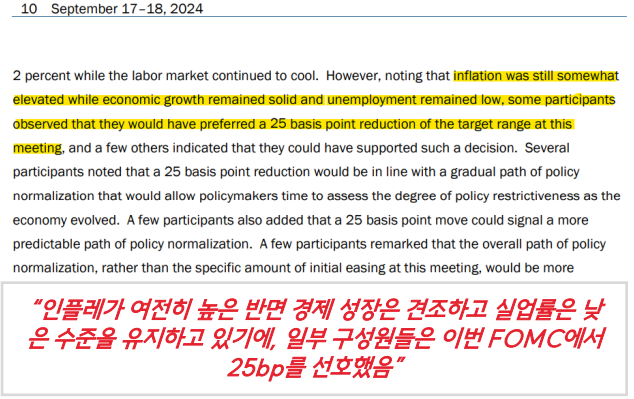
- Core Point 1: **예상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 다시 신경 쓰이는 인플레**
  - 미국 9월 CPI, 헤드라인 YoY +2.4%, MoM +0.2%로 예상 상회. 근원 지수 역시 +3.3%, +0.3%로 예상 상회. 헤드라인 지수는 YoY 기준 21년 2월 이후 가장 낮았지만, 주거비, 초근원 지수 등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큰 폭의 반등 보인 점으로 인해 다시금 물가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듯
- Core Point 2: **9월 FOMC 의사록, 매끄럽지 않을 금리 인하 과정 보여줘**
  -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 결과 소수의견을 제시한 보우먼 이사 외에도 빅컷 결정에 반대하던 구성원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구성원들은 견조한 경제 상황에서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고려해 25bp 인하를 주장했었음
- Core Point 3: **한국 국채, WGBI 편입 성공**
  - 한국, 22년 9월 관찰대상국 선정 이후 2년 만에 FTSE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 그간 미 충족 상태였던 정성 기준(시장 접근성)이 레벨2로 상향되어 편입에 성공. 25년 11월 부터 편입 절차 시작. 약 560~67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중장기물 중심으로 유입될 것

Core Point 1



자료 : Bloomberg, SK증권

Core Poi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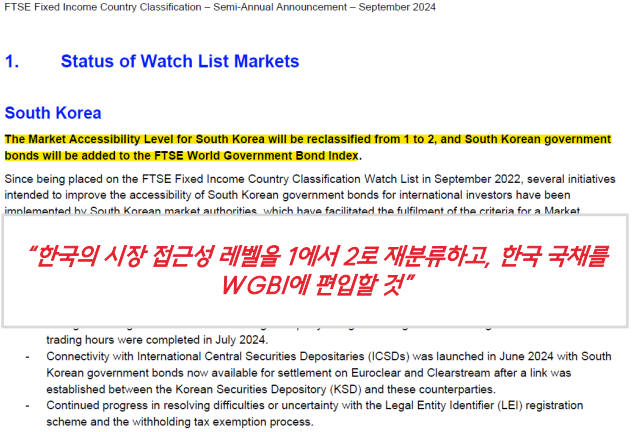
10 September 17–18, 2024

2 percent while the labor market continued to cool. However, noting that inflation was still somewhat elevated while economic growth remained solid and unemployment remained low, some participants observed that they would have preferred a 25 basis point reduction of the target range at this meeting, and a few others indicated that they could have supported such a decision. Several participants noted that a 25 basis point reduction would be in line with a gradual path of policy normalization that would allow policymakers time to assess the degree of policy restrictiveness as the economy evolved. A few participants also added that a 25 basis point move could signal a more predictable path of policy normalization. A few participants remarked that the overall path of policy normalization, rather than the specific amount of initial easing at this meeting, would be more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반면 경제 성장은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부 구성원들은 이번 FOMC에서 25bp를 선호했음"

자료 : FED, SK증권

Core Point 3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 Semi-Annual Announcement – September 2024

1. Status of Watch List Markets

South Korea

The Market Accessibility Level for South Korea will be reclassified from 1 to 2, and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will be added to the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Since being placed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in September 2022, several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have been implemented by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which have facilitated the fulfilment of the criteria for a Market

"한국의 시장 접근성 레벨을 1에서 2로 재분류하고,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할 것"

trading hours were completed in July 2024.

- Connectivity with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aries (ICSDs) was launched in June 2024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now available for settlement on Euroclear and Clearstream after a link was established between the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KSD) and these counterparties.
- Continued progress in resolving difficulties or uncertainty with the Legal Entity Identifier (LEI) registration scheme and the withholding tax exemption process.

자료 : FTSE,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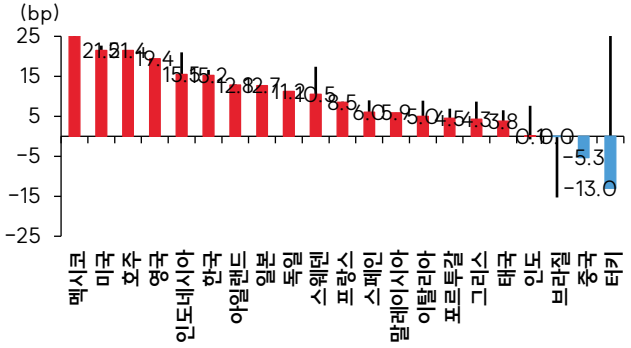
2. FICC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고용 서프, 매파적 FOMC 의사록, CPI 예상 상회 등으로 상승해 4.06% 도달
-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물밑 협상 진행 소식에 의한 지정학 리스크 감소 및 미국 원유재고 급증,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 등에 하락해 75달러 기록
- 환율은 WGBI 편입 성공에도 미국 고용 서프, 매파적 FOMC 의사록 등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상승해 1,350원대 기록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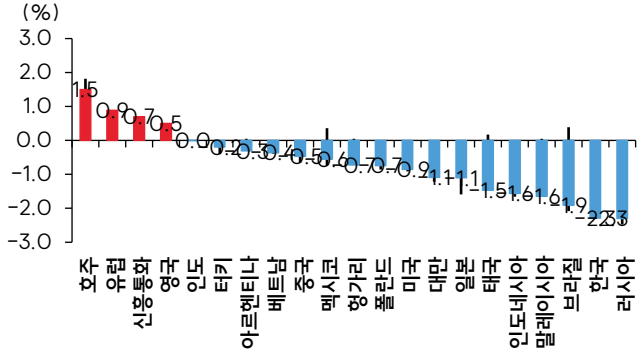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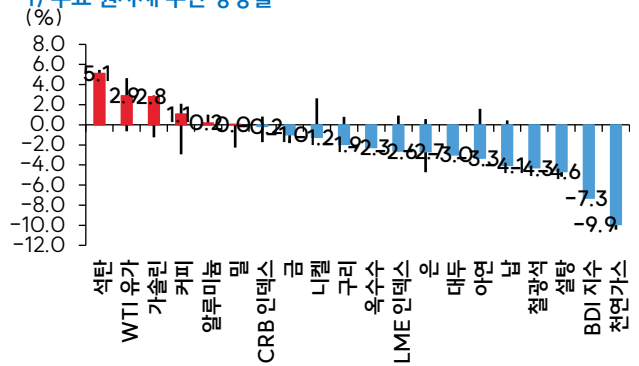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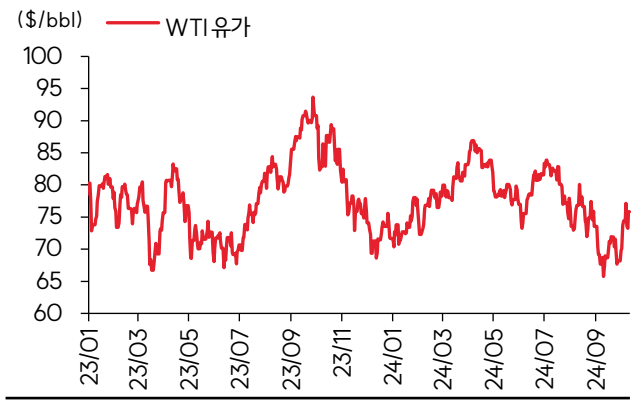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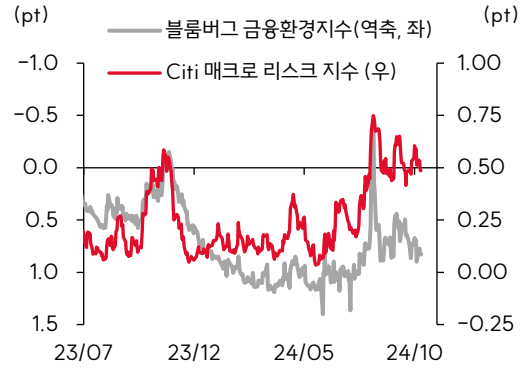
3. 위험과 자산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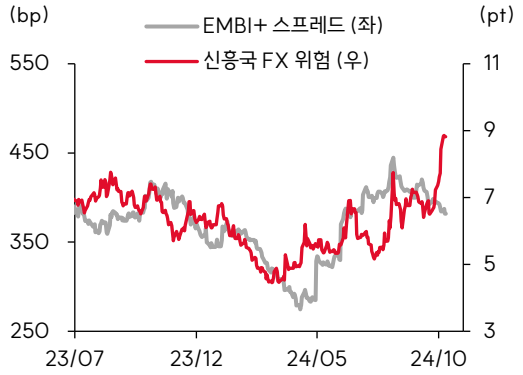
- 중동 정세 악화에 상승했던 매크로 리스크는 재차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지는 모습
- 미국발 경기 우려 덜어주는 경제지표 결과에 주식시장은 랠리 지속되고 있음. 반면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는 추가 빅컷 기대감 낮추며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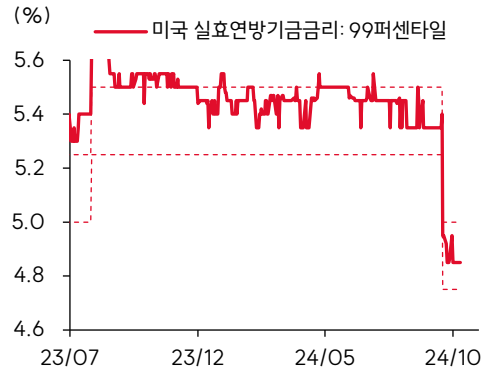
(1)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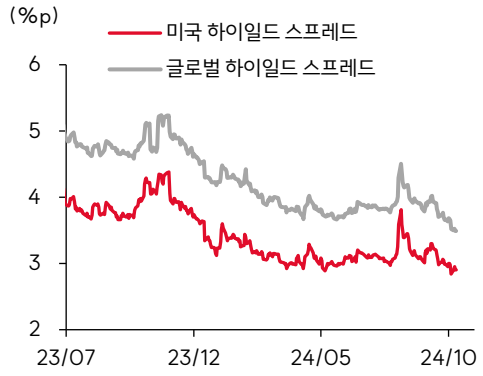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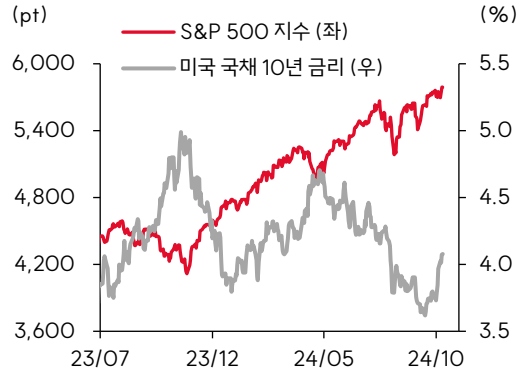


(4)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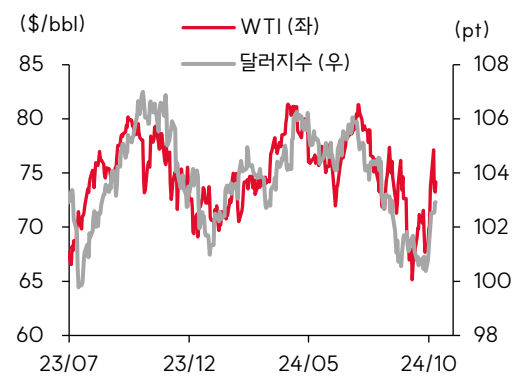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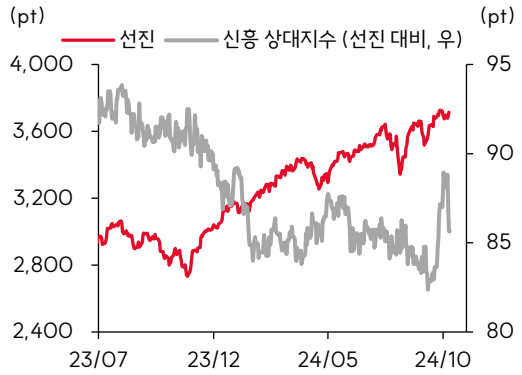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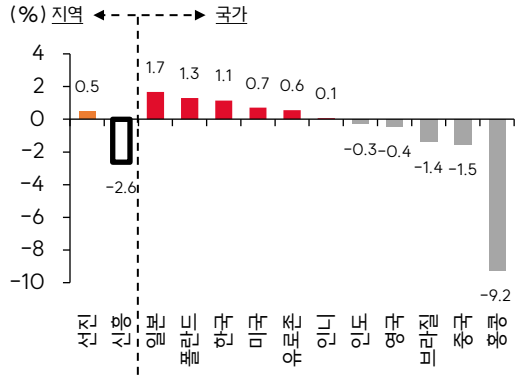
- 신흥국이 선진국 증시를 크게 언더퍼폼. 추가적인 재정정책 미공개한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 중심으로 실망 매물 출회되었기 때문
- 엔비디아 블랙웰 기대감과 TSMC 호실적 공개되며 미국&중국 증시 모두 IT 업종이 가장 우수한 성과 기록. 스타일의 경우 모멘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음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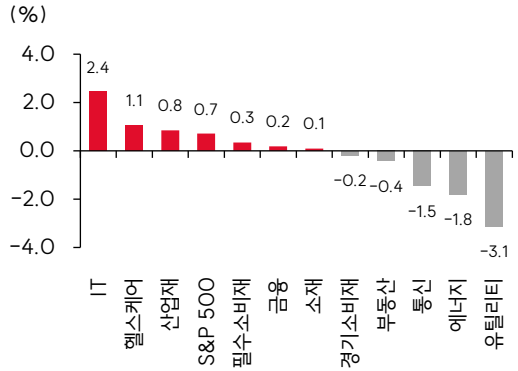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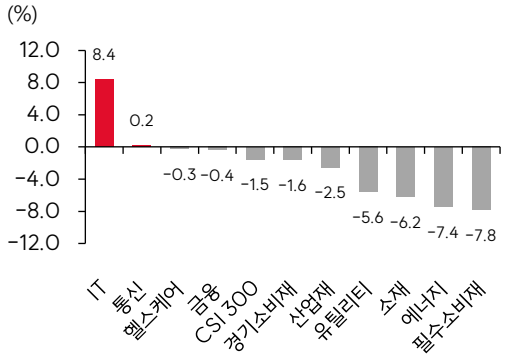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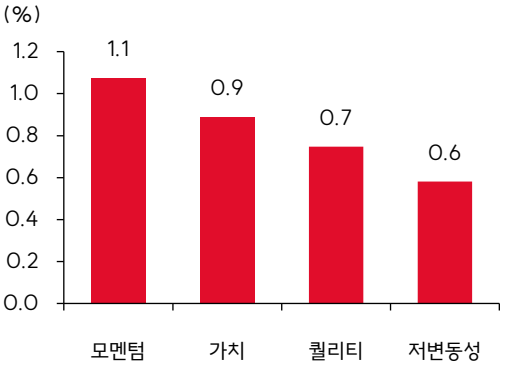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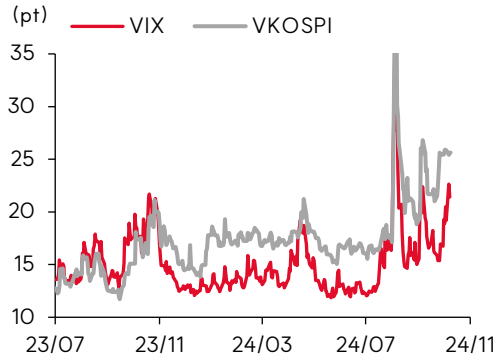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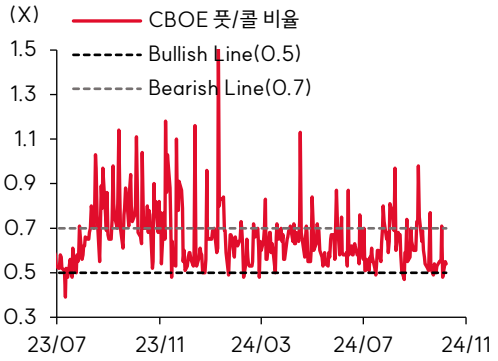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됨에 따라 VIX 지수는 20pt 수준을 재차 상회. 다만 CBOE 풋/콜 비율은 불리쉬 라인에 위치해 증시에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 기술적 지표상 미국 증시는 여전히 과매수권에 가까우며, 국내증시는 여전히 과매도권에 가까운 상황 지속

심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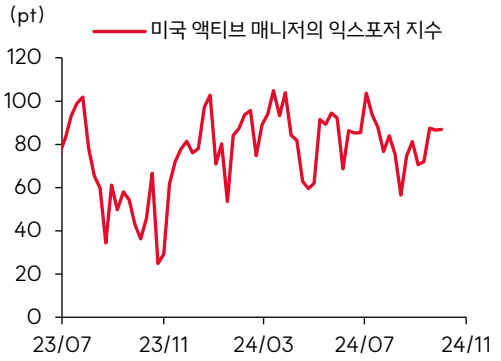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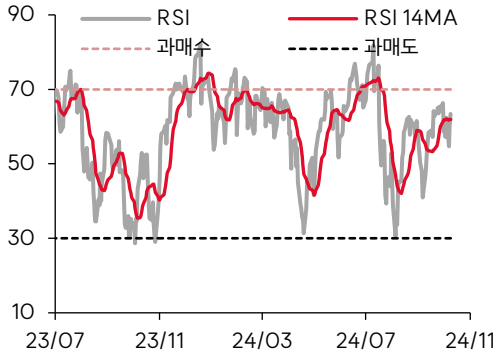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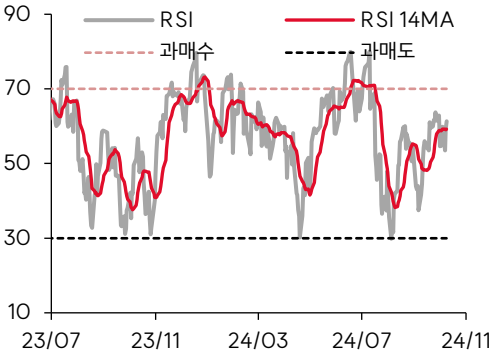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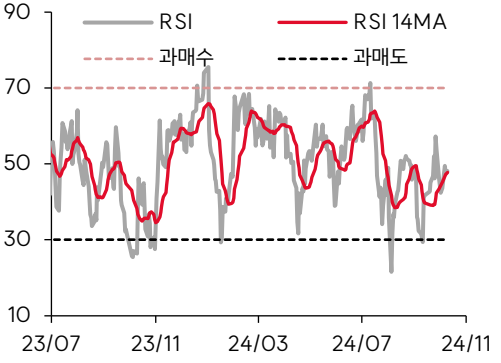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3) RSI: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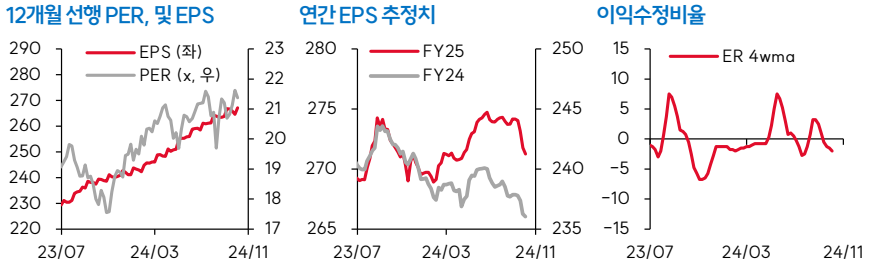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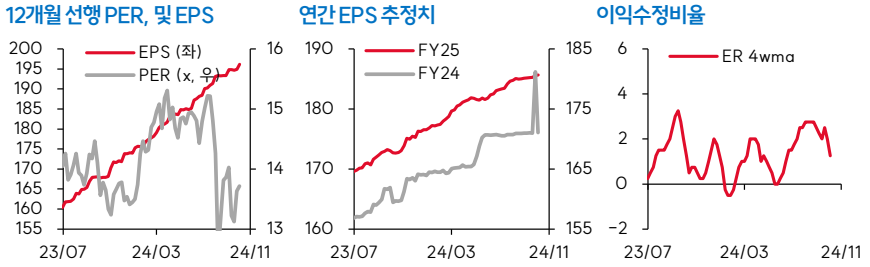
SK증권 리서치센터

- 유로스톡스와 일본의 이익추정치는 크게 하락. 그중 일본의 '24년 이익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국 증시에서는 중국과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개선 확인. 국내 증시 EPS 추정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며 중국 이익수정비율은 눈에 띄게 회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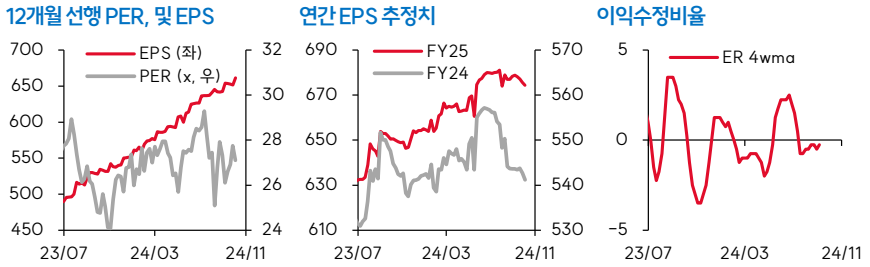
미국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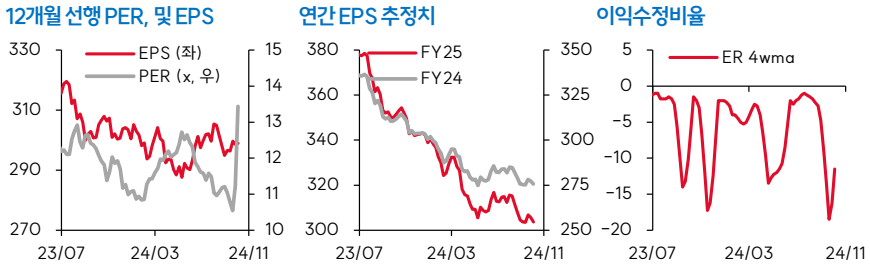
일본 TOP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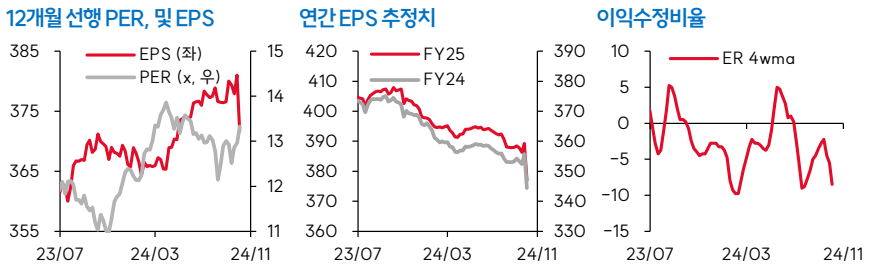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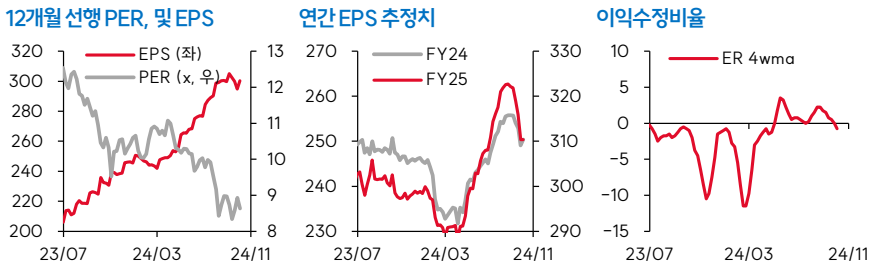
중국 CSI 300



유로존 Stoxx 50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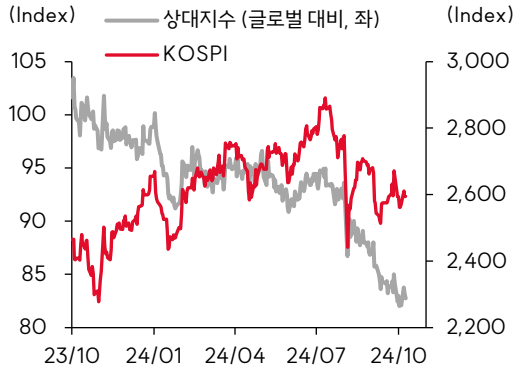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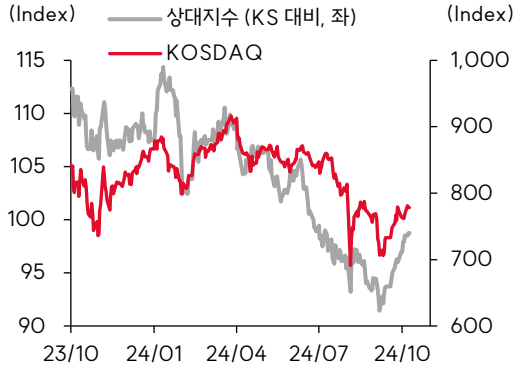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2,599pt, KOSDAQ 지수는 775pt 기록. 필수소비재, 은행, 화학, 자동차 업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사이즈별로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소형주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으며, 스타일의 경우 성장 업종이 가치 업종을 크게 아웃퍼폼

시장

(1) KOSPI 지수 (+ 글로벌 증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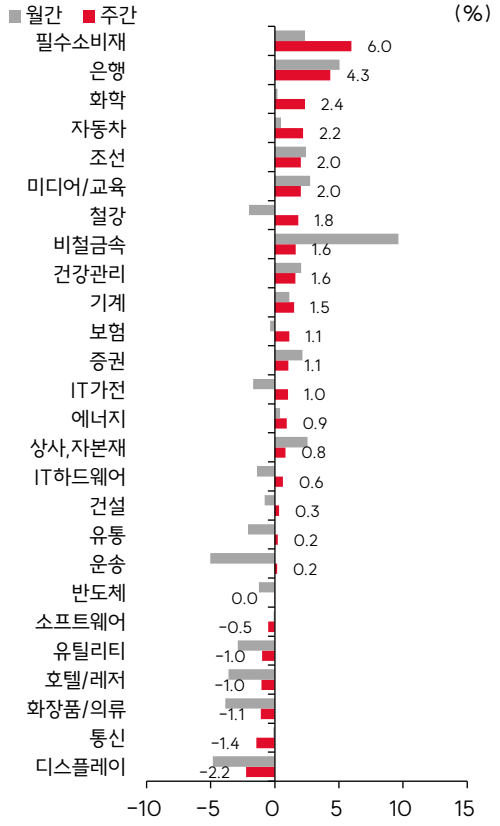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 KOSPI 지수 대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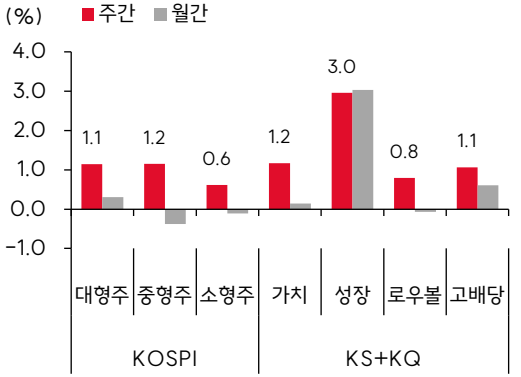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수익률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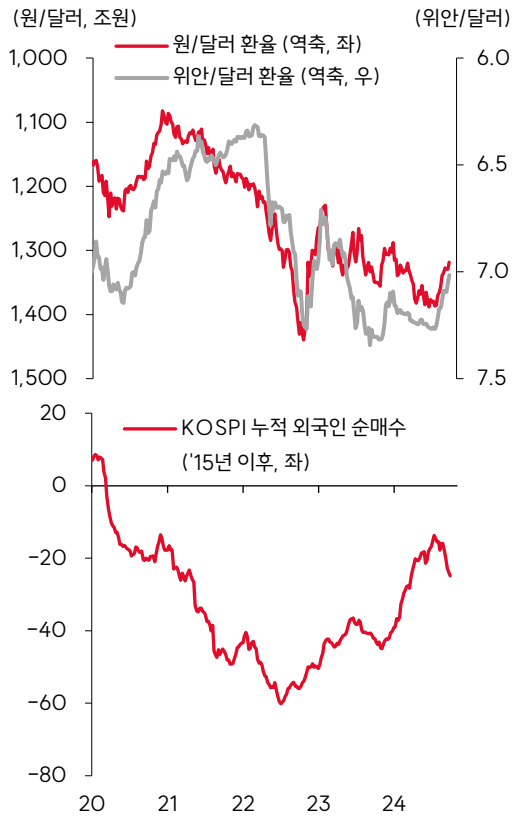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SK증권 리서치센터

- 금주 외국인은 KOSPI 현물을 2,179억원 순매도, K200 선물을 976억원 순매도. 다만 현선물 순매도폭이 평시 대비 높지 않음
-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은 경기 민감 업종을 매수했다는 것. 외국인은 '비철금속, 조선, 상사/자본재, 에너지'를, 기관은 '철강, 화학, 기계'를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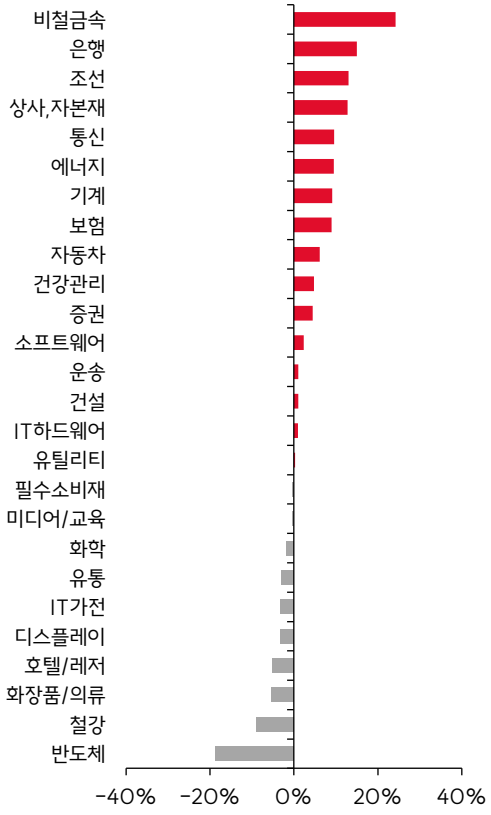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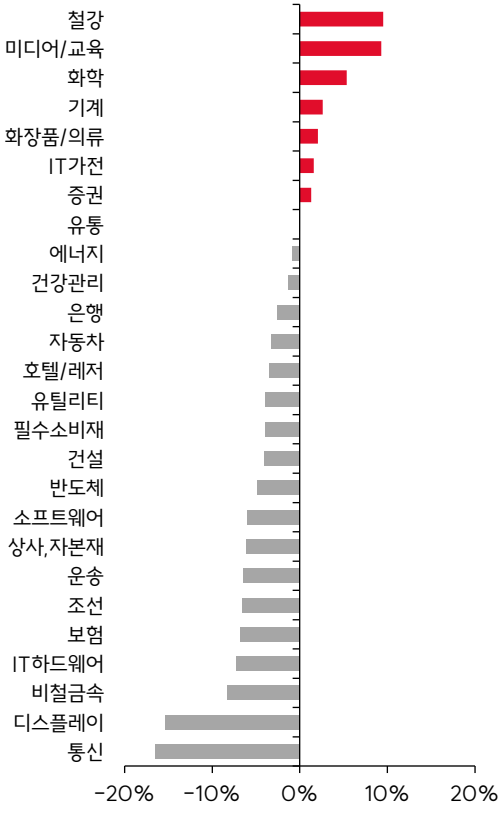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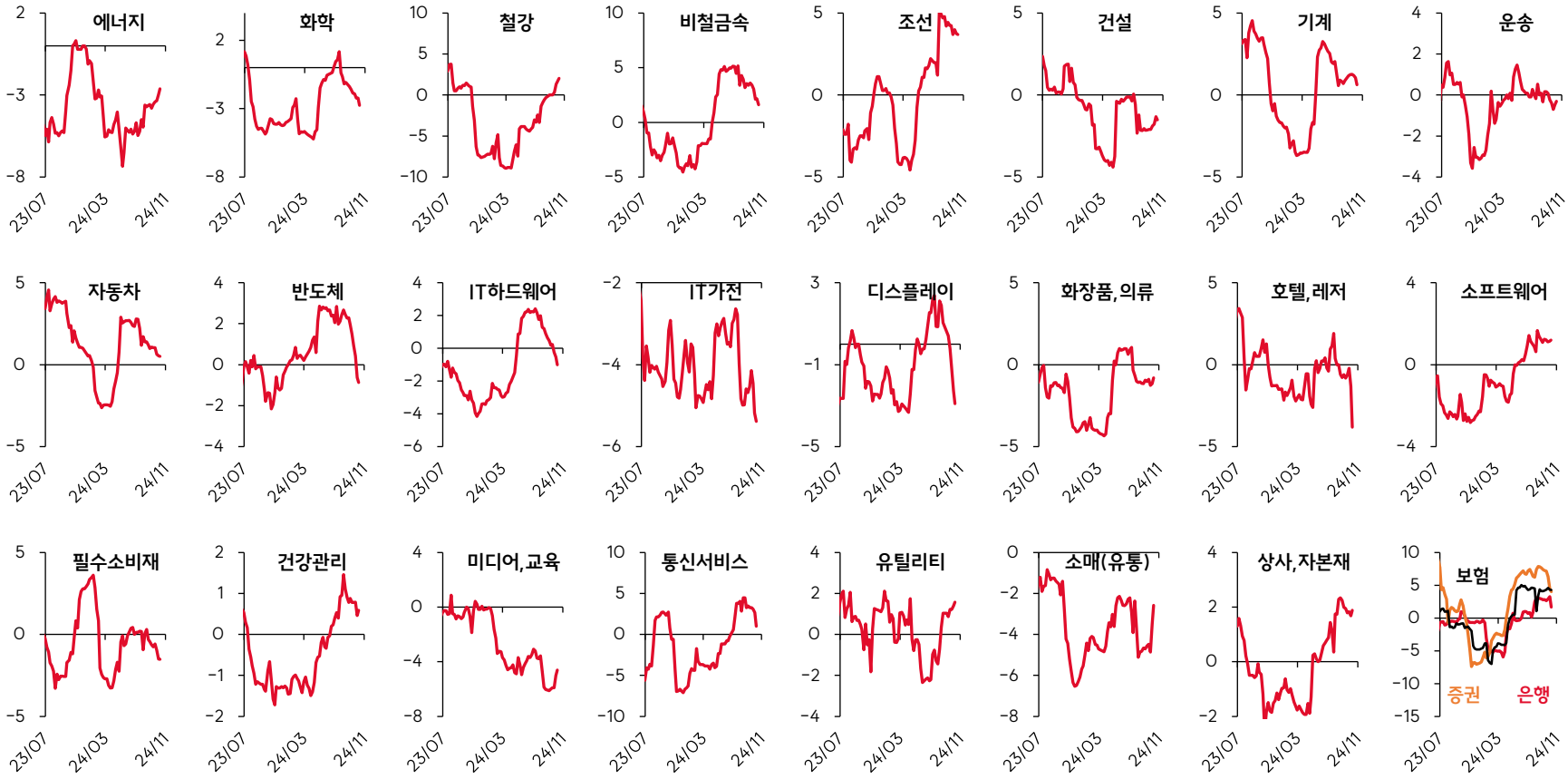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SK증권 리서치센터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으로는 에너지, 철강, 건설, 화장품/의류, 소프트웨어, 미디어/교육, 유틸리티, 소매(유통), 상사/자본재가 있음
- 한편 조선, 화학,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통신서비스의 부진한 이익모멘텀 지속. 특히 IT가전, 디스플레이, 호텔/레저 업종 이익 모멘텀은 가파르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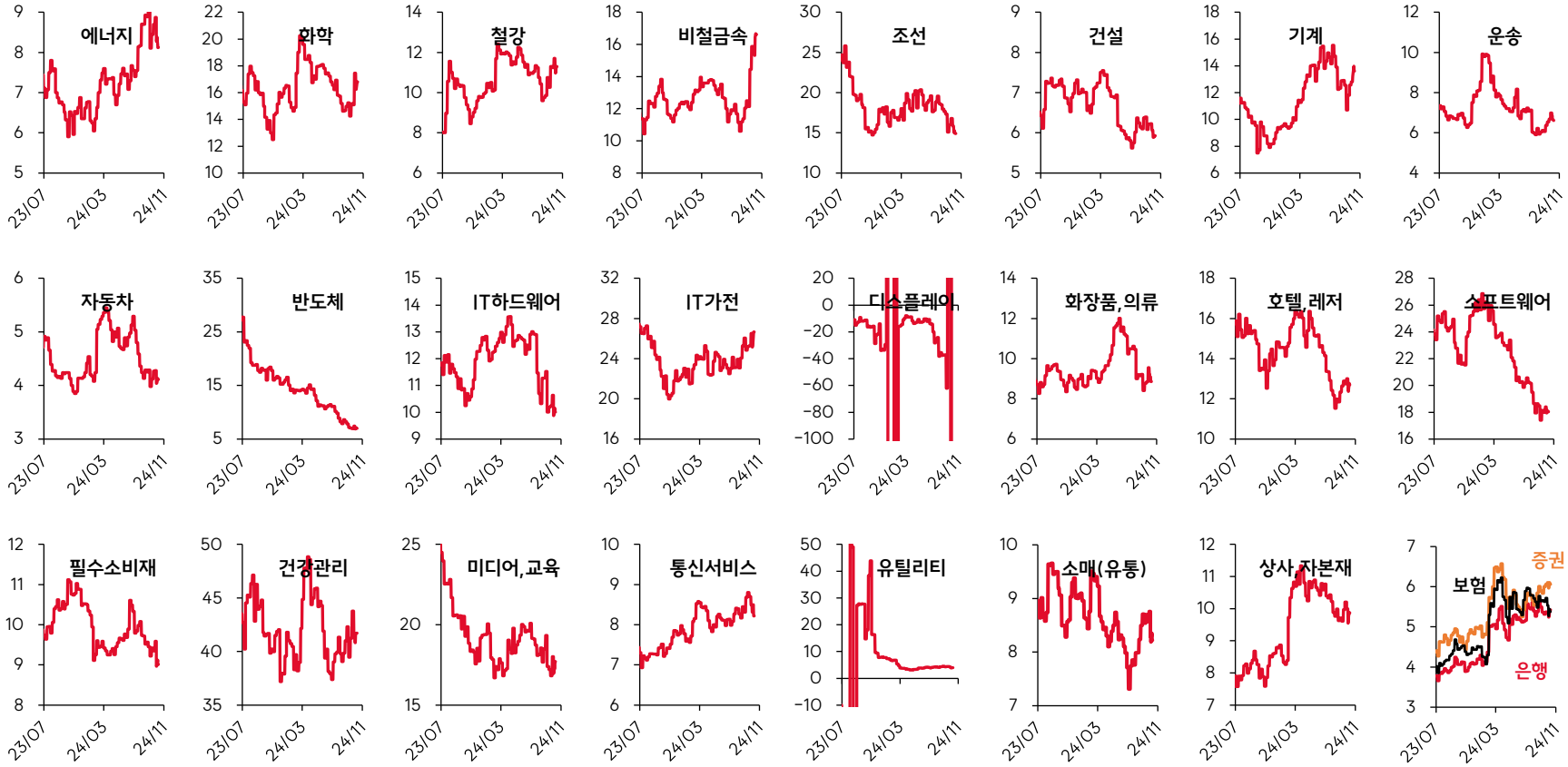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섹터별 12MF P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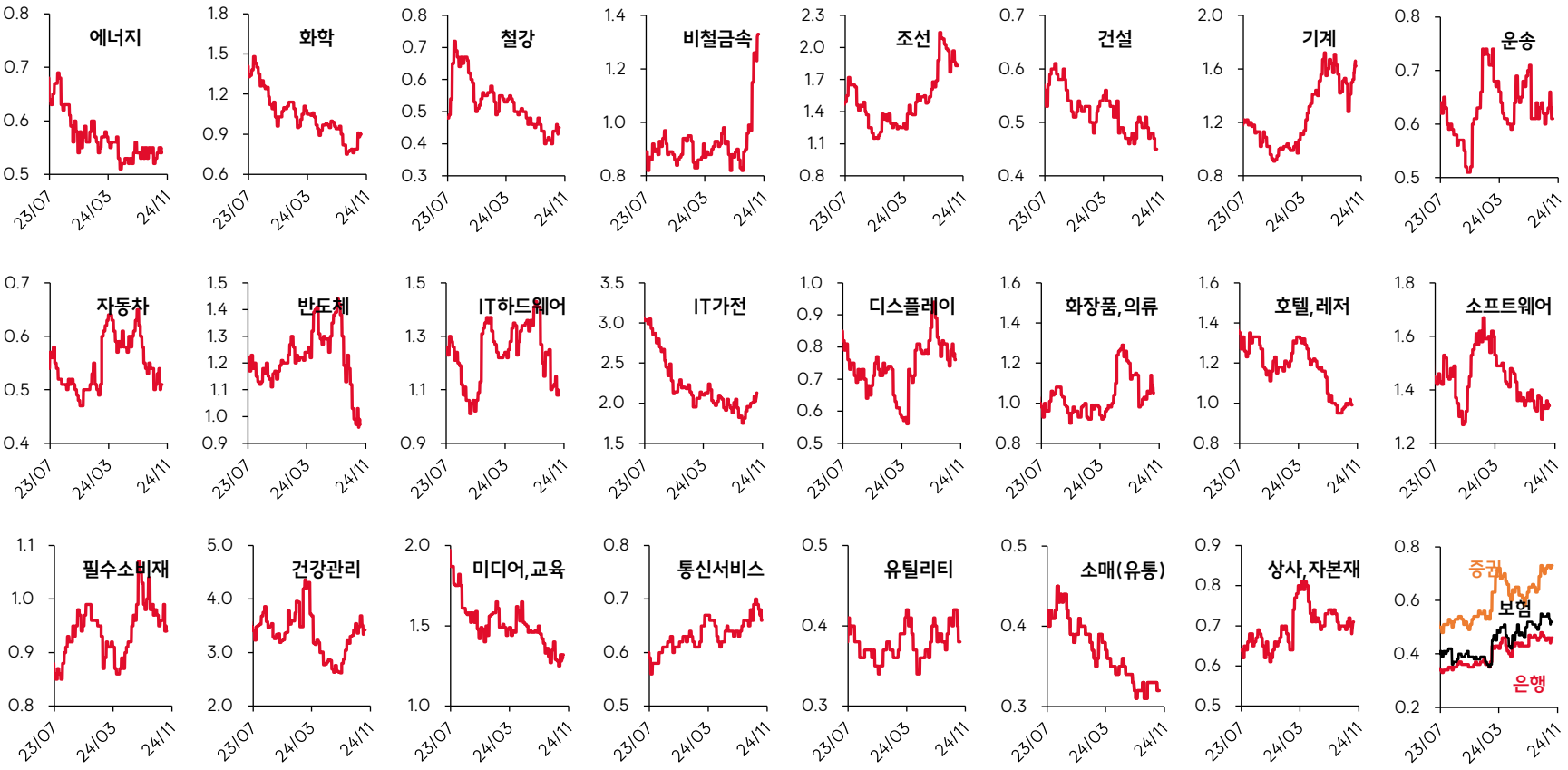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고 있는 비철금속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1.3배까지 상승. 이 외에도 기계, IT가전, 증권 업종 밸류에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
- 애플의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한 디스플레이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0.76배까지 낮아졌음. 소프트웨어의 12개월 선행 PBR도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이익 모멘텀 상위 기업 리스트에 조선,기계, 에너지, 필수소비재, 통신서비스 업종이 다수 포진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면서 외국인&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높은 기업으로는 동원시스템즈(LG에너지솔루션-벤츠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롯데관광개발(중국 모멘텀), LIG넥스원(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MSCI 편입 기대되는)이 있음
-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높으나 기관의 관심이 낮았던 종목은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이트진로, SK텔레콤 등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14820	동원시스템즈	비철,목재등	1.55	21.71	매수	60,000	60,000	100.0	100.0	19.1	36.7	55.4	78%	84%	15%
2	A161890	한국콜마	화장품,의류,완구	1.69	13.96	매수	91,000	91,000	15.4	15.4	-2.5	-6.0	33.6	73%	42%	36%
3	A064350	현대로템	기계	6.64	14.54	매수	65,067	65,067	6.3	0.0	11.4	22.5	128.6	93%	21%	9%
4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11.37	17.07	매수	446,923	446,923	16.7	16.7	-1.9	23.5	283.8	4%	94%	52%
5	A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4.12	4.61	매수	87,364	86,750	10.0	9.1	-0.8	6.2	20.7	77%	41%	26%
6	A032350	롯데관광개발	호텔,레저서비스	0.77	-23.25	매수	16,750	17,300	0.0	0.0	0.0	8.4	8.4	61%	74%	28%
7	A069620	대웅제약	건강관리	1.74	17.35	매수	181,667	181,667	0.0	0.0	11.0	9.9	28.8	37%	88%	20%
8	A035420	NAVER	소프트웨어	27.72	17.05	매수	245,095	244,864	14.3	13.6	2.5	8.4	-23.0	3%	16%	2%
9	A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5.28	21.05	매수	261,667	261,667	5.9	0.0	9.6	29.6	83.9	95%	95%	4%
10	A010620	HD현대미포	조선	4.09	21.18	매수	143,357	143,357	0.0	0.0	2.4	5.2	20.6	81%	38%	19%
11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16.77	20.92	매수	236,313	236,313	6.3	6.3	3.2	5.5	46.4	91%	4%	29%
12	A267250	HD현대	에너지	6.21	5.61	매수	107,600	105,333	0.0	0.0	1.2	-0.8	24.2	86%	19%	24%
13	A112610	씨에스윈드	에너지	2.71	14.31	매수	84,714	84,714	7.1	7.1	-6.7	13.2	-8.6	83%	11%	78%
14	A033780	KT&G	필수소비재	15.23	14.52	매수	123,538	123,538	15.4	15.4	11.9	5.3	34.5	64%	20%	20%
15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13.48	8.24	매수	246,455	246,455	0.0	0.0	3.9	10.1	57.6	97%	10%	6%
16	A093370	후성	화학	0.70	102.85	매수	14,000	14,000	0.0	0.0	2.8	3.6	-43.9	44%	65%	47%
17	A030200	KT	통신서비스	10.16	7.72	매수	48,071	47,714	7.1	7.1	1.4	-2.0	17.2	88%	6%	79%
18	A000080	하이트진로	필수소비재	1.41	12.37	매수	28,222	28,222	9.1	0.0	0.8	-1.2	-10.4	17%	45%	80%
19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12.74	2.92	매수	27,308	27,308	7.7	7.7	-1.0	-8.1	5.0	7%	21%	93%
20	A017670	SK텔레콤	통신서비스	11.88	9.58	매수	69,250	69,250	7.1	7.1	-0.5	-2.5	10.4	83%	3%	92%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SK증권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SK증권 리서치센터

날짜	국가	지표	실제	예상	이전
10/7 (월)	유로존	소매판매 (MoM%) (8월)	0.2	0.2	0.1
10/8 (화)	미국	NFIB 경기 낙관 지수 (pt) (9월)	91.5	91.7	91.2
	미국	무역수지 (8월) (십억달러)	-70.4	-70.6	-78.9
10/9 (수)	독일	무역수지 (8월) (십억유로)	22.5	18.4	16.8
10/10 (목)	**미국**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4 3.3**	**2.3 3.2**	**2.5 3.2**
	미국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9월)**	**0.2 0.3**	**0.1 0.2**	**0.2 0.3**
10/11 (금)	**미국**	**명목·근원 생산자물가지수 (YoY%) (9월)**		**1.3 2.0**	**1.7 2.4**
	미국	**명목·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9월)**		**0.1 0.2**	**0.2 0.3**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잠) (%) (10월)		2.6	2.7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잠) (%) (10월)		3.1	3.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잠) (pt) (10월)		74.5	74.4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잠) (pt) (10월)		70.4	70.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잠) (pt) (10월)		63.8	63.3
	중국	**[일]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0.4**	**0.6**
	중국	**[일] 생산자물가지수 (MoM%) (9월)**		**0.2**	**0.4**
	중국	**[일] 사회융자총액·신규위안화대출 (십억위안) (9월)**		**5100 1800**	**3030 900**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10월)**		**3.25**	**3.50**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10/14 (월)	미국	뉴욕연은 소비자 기대 인플레 (%) (9월)		3.0
	중국	무역수지 (십억달러) (9월)		91.0
10/15 (화)	미국	뉴욕연은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pt) (10월)	10.0	11.5
	중국	인민은행 MLF 1년 금리 (%) (10월)		2.0
	유로존	산업생산 (MoM%) (8월)		-0.3
	독일	ZEW 경기동향지수 (10월)		3.6
	일본	산업생산(확) (MoM%) (8월)		3.1
10/16 (수)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2
	한국	실업률 (%) (9월)		2.4
10/17 (목)	**미국**	**소매판매·근원 소매판매 (MoM%) (9월)**	**0.2 0.3**	**0.1 0.1**
	미국	**소매판매(YoY%) (9월)**	**1.6**	**2.1**
	미국	**산업생산·제조업 생산 (MoM%) (9월)**	**0.2 0.1**	**0.8 0.9**
	미국	**산업생산·제조업 생산 (YoY%) (9월)**	**0.4 0.5**	**0.0 0.2**
	미국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지수 (pt) (10월)**	**4.0**	**1.7**
	미국	기업재고 (MoM%) (8월)		0.4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 (10월)**	**3.40**	**3.65**
	유로존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확) (YoY%) (9월)	1.8 2.7	2.2 2.8
10/18 (금)	미국	주택착공건수·건축허가건수 (백만건) (9월)	1.380 1.470	1.356 1.470
	중국	**실질 GDP (YoY%) (3Q)**	**5.0**	**4.7**
	중국	**실질 GDP (QoQ%) (3Q)**	**0.7**	**0.7**
	중국	**산업생산 (YoY%) (9월)**	**4.5**	**4.5**
	중국	**소매판매 (YoY%) (9월)**	**2.9**	**2.1**
	중국	**주택가격지수 (YoY%) (9월)**	**0.4**	**-5.3**
	중국	**실업률 (%) (9월)**	**5.6**	**5.3**
	중국	**고정자산투자(YTD) (YoY%) (9월)**	**3.4**	**3.4**
	일본	명목·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2.7 2.8	3.0 2.8

일정		
	10월 2주	**[월]** 카시카리·보스틱 연설, 중국 휴장(개천절) **[화]** 쿠글러 연설 **[수]** 한국 휴장(한글날), 한국 WGBI 편입 결정, FOMC 의사록 **[목]** 윌리엄스 연설 **[금]** 보우먼 이사 연설, 실적발표(JP모건, 웰스파고)
	10월 3주	**[월]** 월러 이사 연설 **[화]** 쿠글러 연설, 실적발표(유나이티드헬스그룹, BofA) **[수]** 실적발표(ASML, 램리서치) **[목]** 실적발표(TSMC, 넷플릭스)